

##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 가능성과 그 문제점\*

강창우(서울대)

### 0. 들어가는 말

1920년대에 Wittgenstein이 언어를 일종의 행위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1960년대에는 Austin과 Searle이 언어의 행위적 특성을 설명하는 화행론을 개발하였으나, 언어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Austin과 Searle의 전통적인 화행론을 수용하여 언어 현상에 적용해보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통적인 화행론이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70년대 후반에는 이 이론을 수정·보완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전통적인 화행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화행을 화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모델을 제시한 Hundsnurscher(1975, 1976, 1980)와 Franke(1983, 1990), 그리고 Weigand(1989)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화행론을 보완하는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Hindelang(1978a)이 시도한 요구 화행의 하위분류였다.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Searle이 제시한 5가지 화행 유형 중 선언화행 Deklarativa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한 하위분류가 이어졌는데, Rolf(1983)는 제시화행 Repräsentativa을, Graffe(1990)는 위임화행 Kommissiva을, Marten-Cleef(1991)는 정표화행 Expressiva을, 그리고 Zillig(1982)는 평가화행 Bewerten을 하위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런 화행의 하위 유형 분류에서는 주로 연역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유형의 존재가 비교적 분명한 화행들을 중심으로 다분히 귀납적인 성격이 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화행론의 관점에 따르면, 한 언어 공동체에서 몇 가지의 화행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백 가지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하위분류에서 다루어진 화행 유형은 모두 140여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즉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된 화행들은 언어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행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화행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한 가지는 지금까지 기술되지 못한 화행 유형들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화행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의 설정과 하위분류의 상세화 정도이다.

먼저 1장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화행의 유형 분류에서 사용된 기준들을 살펴보고, 이 기준들을 이용하여 화행 유형을 기술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화행을 하위 유형화할 때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화 정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von Wright(1974)의 ‘기본행위 Basishandlung’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행위의 하위분류 가능성 문제를 조명해보겠다. 4장에서는 화행의 하위유형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의사소통 목적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화행의 하위분류 기준

Austin(1962)과 Searle(1969)이 개발한 언어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론을 언어학에서 수용한 이후 ‘화행 Sprechakt’은 화용론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는 대표적인 몇 가지 언어행위 유형들을 이용하여 이론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자연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화행들을 분류하고 기술하는 일은 언어학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Searle은 화행의 유형 분류를 위해 12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의사소통 목적 illokutionärer Zweck, 일치 방향 Entsprechungsrichtung, 그리고 심리적 상태 psychologischer Zustand를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들을 이용하여 Searle은 화행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Searle이 제시한 기준들로는 이 다섯 가지 큰 유형의 하위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Rolf(1983)는 제시화행의 일차적 하위분류를 위해서 ‘선행되는 화행의 존재 유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제시화행을 시작화행 präsentativ, 반

응화행 reaktiv, 재반응화행 re-initiativ으로 구분하였고, 시작화행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믿음이나 지식의 강도’라는 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Hindelang (1978a)은 지시화행 중 요구화행 Aufforderungen의 하위분류를 위하여 청자가 요구받은 일을 해야 할 의무의 존재 여부, 청자가 요구받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화자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여부, 화자와 청자의 관계,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일에 대해 갖는 필요성과 기호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 Graffe(1990)는 위임화행의 하위분류에서 ‘기대’와 ‘책임’이란 기준을 바탕으로 화자와 청자의 이해관계, 화자의 신뢰성, 그리고 책임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을 하위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Marten-Cleef (1991)는 정표화행의 하위분류를 위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기준으로 도입하여, 정표화행을 일차적으로 화자선호 유형과 화자혐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음 층위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선호나 혐오의 감정이 화자에 게만 있는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층위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화행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Searle이 제시한 기준 이외에 각 화행 유형별로 그 화행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섯 가지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화행들을 구분하고 기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주장하기 Behaupten’와 ‘확인하기 Konstatieren’의 구분, ‘설명하기 Erklären’, ‘이유 말하기 Begründen’, ‘정당화하기 Rechtfertigen’, 그리고 ‘논증하기 Argumentieren’의 구분, ‘지령하기 Anordnen’와 ‘지시하기 Weisung’의 구분을 위해서는 Searle이 제안한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자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행이 다르게 정의되고 분류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유 말하기 begründende Sprechhandlungen’의 경우를 보면, 이 화행 유형에는 ‘설명하기 Erklären’, ‘이유대기 Begründen’,<sup>1)</sup> ‘정당화하기 Rechtfertigen’, ‘논증하기 Argumentieren’와 같은 화

1) 여기서는 강창우(2002)에서처럼 ‘이유 말하기’와 ‘이유대기 Begründen’를 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유 말하기 begründende Sprechhandlungen’는 ‘설명하기’, ‘논증하기’, ‘정당화하기’와 ‘이유대기’를 포괄하는 상위 유형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이유

행이 속하는데, 학자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화행들과 이 화행들의 상위 유형을 다르게 규정한다. 예를 들어, Völzing(1979: 15)은 ‘이유대기’와 ‘설명하기’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는데, 이 두 가지 화행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는 화행의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Öhlschläger(1979: 42ff.)는 ‘이유대기’, ‘설명하기’, 그리고 ‘논증하기’를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으로 보았는데, 그는 화행의 대상 유형을 주요 하위분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Wunderlich(1980b: 116f.)는 ‘이유대기’, ‘설명하기’, ‘정당화하기’를 동일한 화행 유형의 하위 유형들로 보았는데, 이 분류에서 그는 화행의 대상과 논란성 *Strittigkeit*의 존재 여부를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 Ehlich/Rehbein(1986)은 ‘이유 말하기’를 대상 유형과 청자와의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여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Klein(1987)은 언어행위의 대상과 그 언어행위에서 주체화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설명하기’, ‘이유대기’, 그리고 ‘정당화하기’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Bak/Kang/Waßner(1992)에서는 ‘이유 말하기’의 순서의존적 *sequenzabhängig*인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논증하기’, ‘설명하기’, ‘이유대기’, ‘정당화하기’는 대화의 세 번째 발화 순서에서 실현되는 원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sup>2)</sup> 마지막으로 강창우(2002: 215)는 ‘이유 말하기’를 대상의 유형과 논란성 여부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논증하기’, ‘정당화하기’, ‘이유대기’, ‘설명하기’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말하기’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학자마다 대상의 유형, 대상의 내용, 논란성 여부, 선행하는 화행의 유형 등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화행의 하위분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간주관적 *intersubjektiv*인 분류 기준의 설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행의 분류 기준이 다르면 하위 유형화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 기준의 적절성은 화행의 적절한 하위 유형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화행 유형을 각 유형

대기’는 이 상위 유형에 속하는 한 가지 하위 유형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2) Rolf(1983: 85)와 Ehlich/Rehbein(1986: 100f.)도 ‘이유대기’의 순서의존적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순서의존적 특성은 ‘설명하기’, ‘정당화하기’, 그리고 ‘논증하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위의 두 논문에서는 이 화행들의 순서의존적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별로 하위분류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위분류 과정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들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분류 기준의 적절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하위분류의 상세화 정도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하위분류의 상세화 문제

화행의 하위분류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한 가지는 한 가지 화행 유형을 얼마나 세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었다. 1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Searle의 화행 분류 기준은 다섯 가지 화행의 대분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하위 층위의 분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화행의 대유형을 하위분류할 때 각 유형의 하위분류에 적합한 기준들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유 말하기’와 같은 화행 유형을 하위분류할 때는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대상의 유형을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들과 관계되는 ‘이유 말하기’는 모두 ‘설명하기’라는 한 가지 하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을 더 세분하고 그에 따라 ‘이유 말하기’도 더 세분해서 하위분류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sup>3)</sup> 이것은 ‘이유 말하기’의 하위분류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화행의 하위분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여기서의 질문 화행의 하위분류를 예로 살펴보겠다.<sup>4)</sup> Hindelang(1981)은 ‘질문 Fragen’의 하위분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 대화연속체에서 실현되는 위치
- 내용이 문제 중심적인가 혹은 파트너 중심적인가 하는 점

3) 여기에 대해서는 강창우(2002) 참조.

4) Rolf(1983: 130f.)도 제시화행의 하위분류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인가 하는 점
- 질문의 내용이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무적인 것인가 하는 점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여 Hindelang은 질문 화행을 ‘정보질문 Informationsfrage’, ‘조언질문 Ratfrage’, ‘지도질문 Instruktionsfrage’, ‘문제제기질문 Problematisierungsfrage’, ‘협력질문 Kooperationsfrage’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런데 유독 ‘정보질문’만 정보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시 하위분류하여 ‘사실질문 Auskunftsfrage’, ‘설명질문 Erklärungsfrage’, ‘이유질문 Begründungsfrage’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은 이 세 가지 하위유형들이 서로 독립적인 화행 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질문’을 정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위분류했듯이, 질문의 다른 하위유형들도 각각 다시 하위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Franke(1990: 50)가 제안한 고수화행 Insistieren의 하위분류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대화순서(1. Zug)에서 수행된 화행의 유형이 세 번째 대화순서(3. Zug)에서 수행되는 고수화행의 하위유형분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화자 1 (1. Zug)	화자 2 (2. Zug)	화자 1 (3. Zug)
질문		질문고수 (INTERROGIEREN)
비대칭적 부탁		간청 (FLEHEN)
비구속적 요구 (조언, 경고 등)	부정적 반응	독촉 (DRÄNGEN)
구속적 요구 (명령, 지시 등)		중용 (NÖTIGEN)
사실적 정보행위 (전달, 예고 등)		확인 (BEKRÄFTIGEN)
단언적 정보행위 (주장, 추측 등)		맹세 (BETEUEERN)

여기서 제시된 고수화행의 하위분류에 따르면, 최초 화행이 '비대칭적 부탁'인 경우에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 수행되는 고수화행은 '간청'이고, 최초 화행이 비구속적 요구인 경우에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 수행되는 고수화행은 '독촉'이라고 보았으며, 최초 화행이 '구속적 요구'인 경우에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 수행되는 고수화행은 '중용'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Franke는 첫 번째 대화 순서에서 어떤 유형의 화행이 수행되었는지가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 수행되는 고수화행의 행위 조건 *Handlungsbedingungen*을 구성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떤 비구속적 요구가 첫 번째 대화 순서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는 다른 유형의 고수화행이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화행으로 '조언'이 실행된 경우와 '경고'가 실행된 경우 이 대화의 세 번째 순서에서 실행되는 고수화행은 다른 행위 조건을 갖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고수화행의 하위유형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비구속적 요구의 하위유형인 비대칭적 부탁이 최초화행으로 실행된 경우 세 번째 대화 순서에서 실행되는 고수화행의 하위유형을 별도로 설정한 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순서 의존적인 화행들의 하위 유형 분류에서도 하위분류가 얼마나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상세화의 문제와 분류 기준의 설정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화행의 하위분류를 보면, 하위 분류의 기준과 상세화 정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화행의 유형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언어행위의 최소 단위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한 가지 화행 유형의 실현체 집합  $\{SA_1, SA_2, \dots, SA_n\}$ 을 어떤 조건하에서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분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분류의 상세화 문제는 화행의 독립성 조건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기본행위 *Basishandlung*'에 대한 von Wright(1974)의 논의를 단초로 하여 언어행위의 독립성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3. '기본행위'와 언어행위의 독립성 조건

인과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von Wright는 '기본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른 것을 행함으로써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을 '기본행위'라고 부르겠다. (Handlungen, von denen man nicht sagen könnte, daß sie dadurch vollzogen werden, daß man etwas anderes tut, werde ich Basis-Handlungen nennen.) (1974: 70)

그리고 von Wright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스템의 최초 상태 이전의 상태에서 이 시스템 안의 최초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의 수행은 곧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vgl. 1974: 70).

행위의 수행은 시스템의 최초 상태에 선행하는 상태에서 최초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행위의 수행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D]er Vollzug einer Handlung [bedeutet] den Übergang von einem dem Anfangs-Zustand eines Systems vorausgehenden Zustand zu diesem Anfangs-Zustand. [...] Der Vollzug einer Handlung ist somit das In-Bewegung-Setzen eines Systems.) (1974: 70)

언어행위도 일종의 행위이므로 이 이론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행위에 있어서 기본행위는 다른 언어행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행위이다. 화행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단순화행 einfacher Sprechakt에 상응하며, 발화수반행위 위계구조 Illokutionshierarchie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위계상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언어행위이다. 그런데 이 행위들의 특성은 시스템상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언어행위를 통한 시스템상의 변화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지식 체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로 실행되는 기본행위를 '기본언어행위 Basis-Sprechhandlung'라고 부르고, 이것의 상위 경계와 하위 경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위 경계: 기본적인 언어행위는 다른 언어행위를 행함으로써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2. 하위 경계: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의 지식체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은 복합 화행을 기본적인 언어행위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언어행위의 한 부분을 기본적인 언어행위와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의사소통 기능상의 독립성 여부가 검증된 예문들을 이용하여 이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해보자. Kang(1996)과 강창우(1997)에 따르면 (1)의 예문들에서 주문장과 인과문은 각각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지만, (2)의 예문에서 인과문은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전체 발화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다.

- (1) a. Der Motor ist kaputt, weil das Lämpchen nicht mehr brennt.  
b. Vertrauen Sie diesem Mann nicht, weil ich ihn kenne!
- (2) a. Bist du (deshalb) böse, weil ich mich verspätet habe?  
b. Vertrauen Sie diesem Mann nicht bloß deshalb, weil ich ihn kenne!

청자가 (1a)의 발화를 들을 때, 인과문 없이 주문장만 들어도 모터가 고장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어 지식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물론 이어서 인과문을 듣게 되면 이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1b)에서도 주문장으로 참인 정보가 전달되고, 부문장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즉 이 경우에는 충고를 하는 이유가 전달된다. 따라서 주문장과 인과문은 각각 기본적인 언어행위를 구성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2)의 예문에서 주문장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주문장만으로는 청자의 지식체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2a)에서 주문장은 청자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대화 상황에서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청자의 지식체계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또 (2b)의 발화로 화자는 청자에게 이 남자를 무조건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문장만으로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문장만으로는 화자가 의도한 청자의 지식체계의 변화가 유발되지 않으며, 그러므

로 주문장과 인과문은 각각 기본적인 언어행위를 구성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언어행위의 정의가 (1)과 (2)의 예문들을 통한 검증은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을 가지며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다른 특성을 갖는 관계절을 이용해서 검토해보자.

(3) Die Eskimos, die in Iglus leben, essen Fisch als Hauptnahrung.

(3)의 발화에서 관계절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 이 관계절은 “에스키모는 이글루에 산다”라는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절이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 관계절은 에스키모들의 집합에서 이글루에 사는 사람들로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계절로 독립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계절이 독립적으로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언어행위 가설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관계절로는 기본적인 언어행위가 수행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 결과는 (3)의 관계절이 갖는 두 가지 다른 해석과 두 가지 다른 의사소통기능상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기능상의 특성을 갖는 전치사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언어행위 가설을 검토해보자.

(4) Wegen einer Erkältung kommt Peter heute nicht.

전치사구가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화행론의 관점에서 보면 문장의 한 구성성분은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4)의 발화에 들어있는 전치사구 ‘wegen einer Erkältung’도 의사소통기

5) 이 관계절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억양을 통해 관계절까지 발화된 시점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관계절이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이 관계절 앞에는 약간의 휴지 Pause가 들어가며, 이 관계절은 독립적인 발화와 같은 억양 구조를 갖는다.

능상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Klein(1987)과 Kang(1996)에서는 ‘wegen + NP’ 형식의 전치사구도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치사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기본적인 언어행위 가설과 관련하여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5) [상황 1] 페터와 그의 친구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페터의 친구인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Daniel: Hallo, Maria! Hallo, Thomas!

Maria und Thomas: Hallo, Daniel!

Daniel: Ist Peter noch nicht da?

Thomas: Nein. Er kommt heute nicht.

Daniel: Was? Er kommt schon wieder nicht? Er hat bestimmt keine Lust mehr, mit uns zusammenzuarbeiten.

Thomas: Nee, wegen einer schweren Erkältung kommt er heute nicht.

- (6) [상황 2] 페터와 그의 친구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페터의 친구인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Daniel: Hallo, Maria! Hallo, Thomas!

Maria und Thomas: Hallo, Daniel!

Maria: Wie geht's dir, Daniel?

Daniel: Prima, danke. Und dir?

Maria: Mir geht's gut.

Daniel: Übrigens, wegen einer Erkältung kommt Peter heute nicht.

Gerade hat er mich angerufen.

(5)에서 Thomas의 발화 “Wegen einer Erkältung kommt er heute nicht.” 가운데 “er kommt heute nicht” 부분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며, 따라서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 여기서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정보는 전치사구 ‘wegen einer Erkältung’에 의해서만 전달된다. 따라서

이 발화는 전체로서 한 가지 지식 체계의 변화를 유발한다. 그러나 (6)에서 Daniel의 발화는 “Peter kommt heute nicht.”라는 정보와 “Der Grund dafür ist, dass er eine Erkältung hat.”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발화를 통해 청자의 지식 체계에 두 가지 변화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4)의 발화에서 전치사구 ‘wegen einer Erkältung’은 상황에 따라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전치사구가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을 갖는지 여부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지식 체계의 변화를 기본적인 언어행위 및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Die Ferienwohnung meines Onkels in Konstanz wurde im letzten Sommer renoviert.

이 발화로는 대개 한 가지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발화는 한 가지 화행의 실현체로 이해된다. 그러나 (4)의 전치사구가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발화에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들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7) a. Der Onkel des Sprechers hat eine Ferienwohnung in Konstanz.  
b. Die Ferienwohnung wurde im letzten Sommer renoviert.

그런데 발화에 들어있는 전제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가 전달된다고 본다면, 다음 정보들과 관련해서도 (7)의 발화는 청자의 지식 체계에 변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7) c. Der Sprecher hat mindestens einen Onkel.  
d. Der Onkel des Sprechers hat eine Ferienwohnung.

그러나 발화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들로도 화행이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식 체계의 변화’는 발화가 기본적인 언어행위를 구성하고 의사소통기능상의 독립성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언어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기준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4. 화행의 하위유형 분류기준으로서의 의사소통 목적성

Herbermann(1988: 13)은 발화가 의사소통상 수용가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목적성 Illokutivität’,<sup>6)</sup> ‘정보성 Informativität’, 그리고 ‘지시성 Referentialität’을 들었는데, 여기서 목적성은 정보성을, 정보성은 지시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sup>7)</sup> 이것은 발화는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해야 정보성이 있고,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의사소통상의 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발화가 의사소통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은 발화가 의사소통기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조건으로 기능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서 ‘지시성’은 명제적 내용과 세상의 사태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의미적 조건이며, ‘정보성’은 4장에서 살펴본 ‘지식 체계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논의의 맥락에서는 ‘목적성’이 화행의 하위분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목적성’은 ‘의사소통 목적성’을 의미하는데, Searle(1969)은 이것을 화행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이것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화행을 유형 분류했다.<sup>8)</sup> 즉

6) ‘Illokution’은 언어 표현에 들어있는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나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Illokutivität’는 의사소통 의도나 목적이 들어있는 발화의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 특성을 나타내는 적당한 우리말 표현을 찾지 못해, 일단 의미상으로 유사한 ‘목적성’이란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7) “[D]as Vorkommen der Illokutivität [setzt] das der Informativität und das Vorkommen der Informativität das der Referentialität voraus.”(Herbermann 1988: 13)

8) Searle(1969)은 이것을 ‘illusionary point’라고 지칭했는데, 독일어로는 ‘illokutionärer Zweck’ 혹은 ‘illokutiver Zweck’이라고 번역이 되며, ‘kommunikative Absicht 의사소통의도’와 동의어로 이해된다(Hindelang 1983: 46 참조).

Searle에 따르면, 의사소통 목적성의 차이는 화행의 하위유형분류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섯 가지 화행의 대유형에 대한 하위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화행유형의 하위분류에서 의사소통 목적성의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미 1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하위유형분류에서는 선행되는 화행의 존재 유무나 믿음이나 지식의 강도(제시화행의 경우), 의무나 제재 수단의 존재 여부,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와 청자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 일에 대해 갖는 필요성과 기호(지시화행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이해관계, 신뢰성, 책임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위임화행의 경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정표화행의 경우) 등이 분류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로 나온 하위유형들 사이에 의사소통 목적성과 관련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화행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의사소통 목적성이며, 화행의 유형 분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동일 유형으로 분류되는 화행들이 동질성, 특히 의사소통 목적성의 동질성을 갖는가 하는 것과 다른 유형들과 의사소통 목적성상의 이질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화행 유형이 하위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하위 유형들로 분류된 화행들 사이에 의사소통 목적성상의 이질성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화행의 다섯 가지 대유형 분류에서는 의사소통목적이 핵심 기준으로 사용되었고, 이 다섯 가지 대유형의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화행의 대상이 되는 사태와 그것에 대한 화자의 입장,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행이 수행되는 상황과 제도적인 배경 등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의사소통 목적 *kommunikativer Zweck*, 행위조건 *Handlungsbedingungen*, 그리고 발화형태 *Äußerungsformen*를 기술함으로써 화행유형이 적절하게 기술될 수 있다는 Franke(1990)의 주장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화행의 대유형은 동일한 의사소통 목적을 갖고, 각 대유형의 하위유형들은 서로 다른 행위조건과 발화형태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주장’과 ‘통지’, ‘명령’과 ‘부탁’, ‘약속’과 ‘위협’, ‘사과’와 ‘축하’와 같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화행들이 동일한 의사소통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이 화행들이 각각 동일한 유형에 속하며 가장 추상적인 층위에서 의사소통 목적성의 동질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이 화행들의 의사소통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예컨대, ‘사과’와 ‘축하’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의사소통 목적상의 동질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과’의 의사소통 목적은 화자가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갖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축하’는 청자에게 발생한 호의적인 사태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목적은 화행의 대상이 되는 사태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사태에 대한 화자의 입장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대유형의 하위유형이 갖는 의사소통 목적에는 화행의 대유형을 서로 구분하는 의사소통 목적 이외에 각 하위유형이 실현되는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이 부분적으로 반영된다. 즉 동일한 대유형에 속하는 화행 유형을 서로 구분하는 의사소통 목적의 이질성에는 이와 같은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의 차이가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1장에서 살펴본 ‘이유 말하기’의 하위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이 의사소통 목적을 기술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유 말하기’는 제시화행에 속하므로 가장 높은 층위에서는 명제 내용이 나타내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표현하며 상대방이 그 명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목적은 제시화행에 속하는 모든 화행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며, ‘이유 말하기’가 다른 제시화행의 하위 유형들과 구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이다.

- 1) 선행하는 화자의 발화가 존재한다.
- 2) 선행하는 자신의 발화 내용이나 발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지원한다.
- 3) 선행하는 자신의 발화 내용이나 발화 행위의 이유를 언급한다.

화행의 하위유형 분류를 위해서 명제 내용의 의미론적 특성과 발화의 상황 맥락적 특성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말하기’ 화행의 하위분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강창우 2002: 215f.).

설명하기: 객관적 영역에 속하는 대상의 발생 이유나 원인에 대한 정보

를 주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행위

이유대기: 주관적 영역에 속하며 논란성이 개입되지 않는 대상의 발생  
이유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행위

정당화하기: 화자의 행위나 생각 혹은 입장의 정당성에 대해 이 의가 제기  
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것의 정당성을 지원하  
기 위해 실행되는 언어행위

논증하기: 화자의 주장이나 믿음의 옳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것의 옳음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  
되는 언어행위

여기서는 의사소통 목적의 차이에 근거하여 네 가지 하위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차이는 언급되는 ‘대상의 유형’과 ‘논란성 여부’라는 명제 내용의 의미론적 특성과 상황 맥락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행의 하위분류 가능성은 심리적인 층위에서의 목적성뿐만이 아니라 명제 내용의 의미적 특성과 상황 맥락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행들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화행들과는 이질성이 존재하는 한 하위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에서 사용되는 분류 기준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 1) 의사소통 목적성은 상위 유형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하위분류를 위해서는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이 도입된다.
- 2) 의사소통 목적성은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하위 유형들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목적성을 갖는다. 이때 의사소통 목적성은 하위 유형으로 갈수록 의미론적 조건과 상황 맥락적 조건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목적성은 화행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므로, 서로 다른 화행 유형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목적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가능성 중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어떤 의미론적 조건과 어떤 상황 맥락



적 요소가 동질성과 이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하위 유형들의 의사소통 목적성을 규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는 말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는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화행 유형을 이용하여 시도하였다. 그러나 분류 기준 설정은 학자마다, 그리고 화행 유형마다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정한 화행 유형이 하위분류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상세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von Wright의 ‘기본행위’ 개념을 언어행위에 적용하여 ‘기본언어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개념을 통하여 언어행위의 최소 단위 조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Herbermann이 제시한 발화의 수용 가능성 조건을 단초로 하여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목적성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는 의사소통 목적성의 차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목적성의 차이에는 의미적 층위와 상황 맥락적 층위의 차이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의미적 층위와 상황 맥락적 층위에서 무엇이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에 관여적인 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점은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창우 (1997): “화행과 언어적 단위의 관계에 대하여. 독일어 인과문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집, 63-88.
- 강창우 (2002): “화행의 하위분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유 말하기’를 중심으로”, 독어학 5집, 203-221.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Bak, Yong-Ik/Kang, Chang-Uh/Waßner, Ulrich Hermann (1992): "Illokutionshierarchie im argumentativen Dialog." In: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2/1992, 71-85.
- Bayer, Klaus (1981): "Einige Aspekte des Sprechhandlungstyps 'Erklären'". In: Deutsche Sprache. Zeitschrift für Theorie, Praxis, Dokumentation 9 (1), 25-43.
- Ehlich, Konrad/Rehbein, Jochen (1986): Muster und Institution. Untersuchung zur schulischen Kommunikation. Tübingen.
- Eschke, Hans-Günter (1992): "Einige philosophische Überlegungen zur Einheit von Arbeit, Denken und Sprache". In: Suchsland, Peter (Hrsg.): Biologische und soziale Grundlagen der Sprache. Tübingen, 79-84.
- Franke, Wilhelm (1983): Insistieren. Eine linguistische Analyse. Göppingen.
- Franke, Wilhelm (1990): Elementare Dialogstrukturen. Darstellung, Analyse, Diskussion. Tübingen.
- Graffe, Jürgen (1990): SICH FESTLEGEN UND VERPFLICHTEN: Die Untertypen kommissiver Sprechakte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Münster/New York.
- Herbermann, Clemens-Peter (1988): Modi Referentiae. Studien zum sprachlichen Bezug zur Wirklichkeit. Heidelberg.
- Hindelang, Götz (1978a): Auffordern. Die Untertypen des Aufforderns und ihre sprachlichen Realisierungsformen. Göppingen.
- Hindelang, Götz (1978b): "Skizze einer Sprechhandlungs-Taxonomie". In: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2, 50-67.
- Hindelang, Götz (1981): "Zur Klassifikation der Fragehandlungen". In: Hindelang, Götz/Zillig, Werner (Hrsg.): Sprache: Verstehen und Handeln. Bd. 2. Tübingen, 215-226.
- Hindelang, Götz (1983):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Tübingen.
- Holly, Werner/Püschel, Ulrich (1984): "Für einen 'sinnvollen' Handlungsbegriff in der linguistischen Pragmatik".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2, 275-312.
- Hundsnerscher, Franz (1975): "Überlegungen zur Sprechakt-Theorie". In: Werner, Otmar/Fritz, Gerd (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neuere Linguistik. München, 184-201.
- Hundsnerscher, Franz (1976): "Insistieren." In: Wirkendes Wort 26, 255-265.
- Hundsnerscher, Franz (1980): "Konversationsanalyse versus Dialoggrammatik". In:

- Rupp, Heinz/Roloff, Hans-Gert (Hrsg.): Akten des V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Basel 1980. Teil 2. 89-95.
- Kang, Chang-Uh (1996): Die sogenannten Kausalsätze des Deutschen. Eine Untersuchung erklärenden, begründenden, rechtfertigenden und argumentierenden Sprechens. Münster/New York. (= Internationale Hochschulschriften, Bd. 197)
- Klein, Josef (1987): Die konklusiven Sprechhandlungen. Studien zur Pragmatik, Semantik, Syntax und Lexikon von BEGRÜNDEN, ERKLÄREN-WARUM, FOLGERN und RECHTFERTIGEN. Tübingen.
- Kopperschmidt, Josef (1989): Methodik der Argumentationsanalyse. Stuttgart-Bad Cannstatt.
- Leist, Anton (1972): "Zur Intentionalität von Sprechhandlungen". In: Wunderlich, Dieter (Hrsg.): Linguistische Pragmatik. Frankfurt a.M., 59-98.
- Lumer, Christoph (1990): "Begründung". In: Sandkühler, Hans Jörg (Hrsg.): Europäische Enzyklopä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aften. Bd. 1. Hamburg, 364-369.
- Marten-Cleef, Susanne (1991): GEFÜHLE AUSDRÜCKEN. Die expressiven Sprechakte. Göppingen.
- Öhlschläger, Günther (1979): Linguistische Überlegungen zu einer Theorie der Argumentation. Tübingen.
- Rehbein, Jochen (1972): "Rechtfertigungen und Entschuldigungen". In: Wunderlich, Dieter (Hrsg.): Linguistische Pragmatik. Frankfurt a.M., 288-317.
- Rehbein, Jochen (1977): Komplexes Handeln. Stuttgart.
- Rolf, Eckard (1983): Sprachliche Informationshandlungen. Göppingen.
- Searle, John Rogers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a.
- Searle, John Rogers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u.a.
- Searle, John Rogers/Vanderveken, Daniel (1985): Foundations of Illocutionary Logic. Cambridge.
- Völzing, Paul-Ludwig (1979): Begründen, Erklären, Argumentieren: Modelle und Materialien zu einer Theorie der Metakommunikation. Heidelberg.
- Weigand, Edda (1989): Sprache als Dialog. Sprechakttaxonomie und kommunikative Grammatik. Tübingen.
- Wright, Georg Henrik von (1974): Erklären und Verstehen. Aus dem Englischen

- von G. Grewendorf und Georg Meggle. Frankfurt a.M.
- Wunderlich, Dieter (1978): "Wie analysiert man Gespräch? Beispiel Wegauskünfte".  
In: Linguistische Berichte 58, 41-76.
- Wunderlich, Dieter (1979): "Was ist das für ein Sprechakt?" In: Grewendorf,  
Günther (Hrsg.): Sprechakttheorie und Semantik. Frankfurt a.M., 275-324.
- Wunderlich, Dieter (1980a): Arbeitsbuch Semantik. Königstein.
- Wunderlich, Dieter (1980b): "Pro und Kontra".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  
schaft und Linguistik 10, Heft 38/39: Argumentation, 109-128.
- Zillig, Werner (1982): Bewerten. Sprechakttypen der bewertenden Rede. Tübingen.

### Zusammenfassung

#### Möglichkeit der Unterklassifikation des Sprechakttyps und deren Probleme

Kang, Chang-Uh(Seoul National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ie Möglichkeit der Unterklassifikation des Sprechakttyps untersucht. Zur Klassifikation von Sprechakten hat Searle (1969) zwölf Kriterien vorgeschlagen, und mit den folgenden drei Kriterien hat er fünf Sprechaktklassen herausgearbeitet: illokutionärer Zweck, Entsprechungsrichtung und psychologischer Zustand. Bei der Unterklassifikation dieser fünf Sprechaktklassen können aber die von Searle vorgeschlagenen Klassifikationskriterien kaum gebraucht werden, so dass zur Unterklassifikation jeder Sprechaktklasse neue Kriterien eingeführt werden mussten. Dabei stellt sich die Frage, was als Unterklassifikationskriterien dienen und wie ausdifferenziert eine Sprechaktklasse bzw. ein Sprechakttyp unterklassifiziert werden kann.

Im 1. Kapitel werden neben den Klassifikationskriterien von Searle die Kriterien, die in den bisherigen Unterklassifikationen der Sprechaktklassen verwendet wurden, kritisch betrachtet. Im 2. Kapitel wird auf die Frage der Ausdifferenzierungsgrenze näher eingegangen, wobei diskutiert wird, ob die Unterklassifikation der Fragehandlung von Hindelang (1981) und die des Insistierens von Franke (1990) genügend ausdifferenziert sind oder es noch Möglichkeiten besteht, sie noch weiter auszudifferenzieren. Die Frage nach der Ausdifferenzierungsgrenze ist mit der Frage gleichzusetzen, inwieweit eine Sprechhandlung ohne Verlust ihres Handlungscharakters in Untertypen zerlegt werden kann. Um diese Frage zu beantworten, wird der Begriff 'Basishandlung' eingeführt, den von Wright (1974) im

Rahmen seiner Theorie der Kausalität entwickelt hat. In Analogie zu diesem Begriff wird der Begriff 'Basis-Sprechhandlung' vorgeschlagen und wie folgt definiert:

1. Obere Grenze: Eine Basis-Sprechhandlung ist die Sprechhandlung, die nicht durch den Vollzug der anderen Sprechhandlungen ausgeführt werden kann.
2. Untere Grenze: Durch eine Äußerung bzw. einen Teil der Äußerung kann nur dann eine Basis-Sprechhandlung vollzogen werden, wenn sie/er eine Änderung des Wissens oder der Handlung des Hörers herbeiführt.

Diese These wird anhand der Beispiele überprüft, deren kommunikative Selbständigkeit schon durch andere Studien bestätigt wurde. Als weiteres Kriterium zur Entscheidung über die Möglichkeit der Unterklassifikation wird im 4. Kapitel der Begriff 'kommunikativer Zweck' eingeführt und darüber diskutiert, wie der kommunikative Zweck der Untertypen einer Sprechaktklasse bzw. eines Sprechakttyps definiert und beschrieben werden kann. Dabei wird festgestellt, dass er durch die Spezifizierung des kommunikativen Zwecks der Sprechaktklasse bzw. des Sprechakttyps, zu der/zur dem die Untertypen gehören, definiert und beschrieben werden kann, wobei die semantischen, die kontextuellen und die situativen Aspekte mit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검색어] 화행, 유형분류, 하위분류, 기본언어행위, 의사소통 목적성  
Sprechakt, Klassifikation, Unterklassifikation, Basis-Sprechhandlung, kommunikativer Zweck

강창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kcw@snu.ac.kr